

'월드컵 집관족' 증가에 유통가 함박웃음

광주 이마트 3곳 24~28일 치킨 매출 224.9% 증가
광주·전남 롯데마트, 맥주·초밥 등 간편식 매출 경증
대형마트·편의점 등 1500여 종 반값 할인·1+1 행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28일 치른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 경기에서 아쉽게 졌지만,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집관족'을 등에 업은 유통가는 모처럼 웃었다.
29일 광주지역 이마트 3개 점포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른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이들 매장의 치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9% 뛰었다.
대형마트 치킨 매출이 크게 뛴 건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 먹거리를 즐기며 축구 경기를 보는 '집관족'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튀김 매출은 1년 전보다 112.9% 증가했고, 포장 초밥 매출은 28.4% 증가했다.
광주 이마트의 주류 매출은 닷새 동안 5.1%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소주 매출이 22.0% 늘며 증가율

이 가장 높았고, 막걸리(9.7%), 맥주(9.3%) 등이 뒤를 이었다.
단 와인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소폭(0.5%) 감소했다.
광주 3개·전남 4개 점포를 가진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전체 델리(간편식) 매출이 전년보다 45% 뛰었다. 이 가운데 치킨 매출은 150% 급증했고, 맥주 매출은 40% 늘었다.
월드컵 응원 열기가 더해지면서 야식 수요를 겨냥한 유통가의 준비는 더 분주해졌다.
이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6000원대 치킨'을 1인당 한 마리 한정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생생치킨'과 '로스치킨'으로 신세계포인트 회원이면 3000원 할인한 각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행사를 진행하는 맥주 상품을 함께 구매



하면 치킨 할인가에 2000원을 추가로 깎아준다.
이외 고추잡채, 방어초밥, 파스타 등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이마트의 자체 상표 피코크를 내건 바비큐와 순대 볶음 등 간편 외식과 후식 등 20여 종은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맥주와 궁합이 좋은 육포와 땅콩 등 마른안주는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할 때 20~30% 할인이 적용된다. 숙취 해소제는 행사카드로 살 때 40% 할인된다.
최후환 이마트 마케팅담당 상무는 "집에서 월드컵을 즐기자는 고객들을 위해 키친텔리와 피코크 인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할인행사를 기획

했다"며 "고물가 시대 밥상물가를 낮추기 위해 매우 다양한 주제의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12월 한 달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7990원 '당당치킨' 신제품을 내놓고, 오는 12월7일까지 삼겹살과 목심, 한우 등심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먹거리 할인전에 가세한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전이 오는 3일 자정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편의점 업계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이마트24는 다음 달까지 인기 수제 맥주를 6캔 9900원에 내놓는다. 대한축구협회(KFA)와 협업

해 만든 선수 사진이 들어간 먹거리 8종은 12월2~3일 행사카드로 사면 반값 할인한다. 먹거리 1500여 종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1+1, 2+1 텀 증정 행사를 다음 달까지 펼친다.
이마트24도 가나전이 열렸던 지난 28일 하루 맥주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2.3배, 간편 안주류는 2.4배 뛰었다. 당일 비가 오면서 우산 매출은 115% 증가하기도 했다.
야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증가율도 '세 자릿수'에 달했다.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8일 전국 매장 매출이 1주 전과 비교해 150%,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60% 증가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주문 급증을 우려해 당일 자사 모바일 앱에서는 배달 주문을 일시 중단하고 포장 주문만 가능하도록 했다.
제너시스BBQ 그룹도 전날 매출이 1주 전과 비교해 190%, 한 달 전과 비교해 220% 늘었다. 지난 24일 우루과이전과 비교해서도 4% 올랐다.
bhc치킨은 전날 가맹점 매출이 전월 동일 대비 297%, 전주 동일 대비 312%, 전년 동일 대비 213%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식기로 성탄 분위기 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29일 8층 빌레로이앤보흐 매장에서 연말 성탄 분위기를 자아내는 식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 상품은 오는 12월1일까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박만 제20대 노조위원장 당선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제20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박만(44·사진) 후보가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16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여 박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했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 3년간이다.
박 후보는 득표율 60.4%에 해당하는 553표를 받았다.
박 신임 위원장과 임현철 부위원장, 조수연 부위원장, 조성환 사무국장이 함께 활동한다.
박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하남공단지점, 무안지점, 남광주지점, 기관 영업부 등을 거치며 다양한 업무를 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성과지표(KPI) 단순화 및 절대평가제 도입, 시의 발령 폐지, 육아휴가(휴직) 제도 개선, 실무평가 및 연수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박 당선자는 "광주은행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희망으로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조합원 입장에서 공감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며 현안 해결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남구 '하나로마트 월산점' 일일 점장으로 나선 김호상(왼쪽) 광주축산농협 조합장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받은 한우 브랜드 '무등골 그린한우' 상품을 고객에 선보이고 있다. <광주축협 제공>

광주축협 '무등골 그린한우' 연매출 290억 눈앞

광주축산농협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한우 브랜드 '무등골 그린한우' 매출은 올해 들어 10월 말 기준 242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무등골 그린한우는 지난 2020년 10월 HACCP 인증을 받은 뒤 연 매출이 2020년 282억원, 2021년 287억원 등 증가 추세다.
광주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위생 교육을 하며 축산물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ACCP 인증 기준에 맞춰 작업자와 작업장, 가공시설 위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있다.
'무등골 그린한우'는 농협 하나로마트 월산점과 한우직매장 일곡점, 진월동 남구로컬푸드점, 학동 로컬푸드점, 광주유통센터 식자재매장 등에서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김호상 조합장은 "고품질 한우를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은행 가계대출 금리 5.34% '10년여만에 최고'

주담대 4.82%로 0.03%p ↑ ... 신용대출 7% 돌파 0.60%p ↑
기업 대출 0.61%p 오른 5.27%... 10년 1개월만에 최고
예금 평균 금리 4.01%로 0.63%p ↑ ... 13년 9개월만에 최고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0.19%포인트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한 달 사이 0.63%포인트나 뛰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오펜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았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연 3.7%~4.0%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데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고,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7.22%)는 0.60%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1월(7.02%) 이후 처음이며, 금리 수준은 2012년 6월(7.89%) 이후 가장 높았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10월 신규취급액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3.39(+25.12)
↑ 코스닥	727.54(+9.64)
↑ 금리(국고채 3년)	3.723(+0.054)
↓ 환율(USD)	1326.60(-13.60)

농협 광주본부 4100만원 상당 쌀 기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가격이 하락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4100만원 상당 광주 쌀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추진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고성신 농협광주지역본부장, 김석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김형덕 송정농협 조합장, 이선학 광주 통합 RPC(미국종합처리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산구청을 찾아 팔도미(8kg) 1300상자와 빛찬들 햇쌀(20kg) 200포를 전했다.
고성신 광주지역본부장은 "사랑의 쌀 나눔으로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할 기회도 얻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의 선한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725만원'

42세대 노동소득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이 42세에 3725만원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세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전환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29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2020년 기준 총소득은 1081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984조3000억원이었다. 생애주기에서 총 97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167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1조8000억원, 122조9000억원 적자였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 때 3370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으로 진입했고 43세에 1726만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은 33년에 불과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나 적자 재진입 연령은 점차 뒤로 밀리는 추세다.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5세나 밀렸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6세로 3370만원에 달한다. /연합뉴스